



# 국내·외 축산소식



## 올 추석 시장서 미 쇠고기 '찬밥' 특정위험물질 잇따라 발견 ... 소비자 외면

유통업체들이 추석 연휴를 겨냥해 마련한 한우 판매량은 일부 마트에서 증가하는 등의 실적이 나온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시판된 한우, 미국산·호주산 쇠고기 등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일부 마트에서는 한우 판매량이 지난해 추석보다 10~20% 증가한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대부분의 마트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했다.

홍원식 롯데마트 팀장은 "한우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추석대비 10%, 선물세트는 20% 증가했다"면서 "수입육도 23% 늘었지만 대부분 호주산 쇠고기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용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과장은 "수입 쇠고기 판매량이 약 55% 신장했지만 이 가운데 호주산 쇠고기 비율이 약 95% 정도"라며 "이번 추석에는 미

국산 쇠고기 판매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우 판매량이 지난해 추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태풍의 영향으로 청과물, 수산물 등의 수확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이유도 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지난 8월말 검역재개 이후 소비가 수입재개시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해 할인점이나 일반 식당으로 납품하는 물량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과 통뼈가 연이어 발견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나타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구매량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형 마트들이 이번 추석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해서는 선물세트 준비와 마케팅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반면 한우와 호주산 쇠고기는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를 홍보한 점도 소비자들의 이런 성향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 광주지역 A수입업체의 관계자는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됐고 언론이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소비자들의 외면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올해 추석을 겨냥해 수입한 물량의 70~80%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B수입업체의 관계자도 “냉장으로 들어온 물량은 검역중단과 소비부진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임박해 대부분 냉동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도 무시할 수 없어 향후 미국산 쇠고기 취급물량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 세계 곡물값 폭등 ... 밥상대란 오나

국제 곡물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원유가 급등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와 이상 기후로 인한 흉작 탓이다.

이에 따라 올해 농축산물 부문 국제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고전 중인 국내 축산업계는 수입 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 **옥수수·밀 가격 급등**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9월 세계 곡물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상품거래소(KCBOT) 밀(소맥) 9월 인도분 가격은 지난 14일 현재 t당 296달러로 1년 전에 비해 68.2% 급등했다. 이는 1996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한 달 전에 비해서도 21%나 상승한 가격이다.

옥수수와 대두(콩) 가격도 크게 올라 9월물 옥수수와 대두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t당 각각 132달러, 346달러에 거래됐다. 이 가격도 지난해 9월보다 각각 34.7%, 72.1% 오른 것이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25%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상승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입 곡물을 주로 사용하는 배합사료는 1년 사이에 무려 30% 가까이 올랐고, 라면 빵 등의 원료로 소비자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밀가루 가격 역시 15% 정도 인상됐다.

올 상반기 농축산물 수입은 65억3744만달러(1396만t), 수출은 11억224만달러(67만t)로 54억352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9.1% 늘어났다. 농축산물 적자액은 같은 기간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인 52억755만달러를 웃돈다.

특히 단일 품목 중 수입 규모가 가장 큰 옥수수는 상반기 수입액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늘어난 8억7078만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 되면 올 연말까지 농축산물 적자는 100억달러를 넘어선 1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 옥수수** 국제원유가 급등은 옥수수 가격 급등 현상을 초래했다. 식용과 사료용 옥수수의 상당 부분이 에탄올 생산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 생산된 옥수수 25% 정도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됐다.

올해 세계 각지에서 나타난 이상기후와 미국 중

부지역의 서리와 흉수 등으로 곡물 생산이 타격을 받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 소비가 늘어 수급 여건이 악화된 점도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일보]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EU 회원국 중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가 많아 (한·미 FTA와) 기본 설정이 다르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 김종훈 본부장 “한-EU FTA 연내 타결 가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보다 빠른 진도, 무역구제·서비스 협정문 등의 진척, EU와 우리측의 조기 타결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한·EU FTA 협상 연내 타결이)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난관이 있지만 참여정부 임기 내 마무리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대해 “제일 큰 게 돼지고기이고 햄과 낙농제품 등의 시장개방 요구도 우려된다.”면서 “의약품의 경우 한·미 FTA 수준을 고려할 때 특허기간 인정을 길게 해달라는 EU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 “지리적표시나 명품 단속에 대해서는 EU가 미국보다 강하게 요구하겠지만 향후 중국과의 FTA를 생각한다면 우리측이



### 축산분야 예산 3541억 편성

내년도 농림예산 중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1444억원보다 145.2%늘어난 3541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부가 최근 확정된 2008 농림예산(기금)안에 따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분야 예산은 우선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고 개량·사육기술을 개선하는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경쟁력 제고대책을 펴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와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에 1029억원, 브랜드 육 타운 32억원,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30억원,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지원 20억원, 가축개량사업소지원 345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요소 차단 등 수입산과 차별화하기 위한 대책예산도 확대됐다.

내년도 본사업이 시작되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올해 42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지원도 20억원에서 31억원으로,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관련 예산도 4억원에서 27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한우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 송아지생산 안정 기준가격을 현재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 53억원에서 149 억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감축 및 퇴비액 이용 활성화 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예산을 올 해 424억원에서 651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예 산을 324억원에서 414억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예산을 163억원에서 323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농수축산]



### 경북대 김순권 교수, 사료용 슈 퍼옥수수 개발

국내 축산농가의 사료 부담 30% 이상 절감, 수확량 2배 기대

옥수수 박사 경북대학교 김순권 교수가 국내 축 산농가의 사료 부담을 30% 이상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두배 가량의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료 용 슈퍼옥수수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김순권 교수 연구팀이 개발 한 신품종 가축담근먹이용(사료용) 옥수수 2품종을 각각 경대 사이리지 1호, 경대 사이리지 2호라는 이름으로 육성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등록을 완료 했다.

이번에 개발된 '경대 사이리지 1·2호'는 지난 76년도 김 교수가 농촌진흥청 재직시 개발한 수원 19호보다 50% 이상, 수입 미국종보다 20~30% 정도 더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30년 동안 국내에서 가장 인기리에 재배되어 온 사료용

옥수수종보다 2배 가량의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혔다.

김 교수 연구팀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육종해 온 품종 중 가장 안전하고 다수확이 가능한 품종인 경 대 사이리지 1·2호는 헥타당 25톤 이상의 생체 가축사료 생산이 가능하다.

생체 가축사료는 개화후 55일이 지난 이삭이 잘 달린 옥수수를 뜻하는 것으로, 경대 사이리지 1·2 호의 영양가는 50%가 이삭에, 나머지 50%는 줄 기와 잎에 있다.

따라서 옥수수 전체를 사료로 이용할 경우 수입 곡물로 농후사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보다 2배의 효율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는 수입옥수 수로 농후사료를 만들고 있으며, 사료비가 축산비 용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대 사 이리지 1·2호의 개발은 국내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또 경대 사이리지 1·2호는 완전 무농약 안전 재 배가 가능하고, 어떤 토양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 다는 장점이 있다.

김 교수는 이번 경대 사이리지 1·2호 개발과 관 련하여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 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한 에서 이미 이들 품종에 대해 동계 종자 증식을 국 제옥수수재단에 요구한 상태이고, 정부의 지원이 있을 시 동계 종자 증식을 경북대 벤처회사 '닥터 콘'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